

結婚 숨기는 女社員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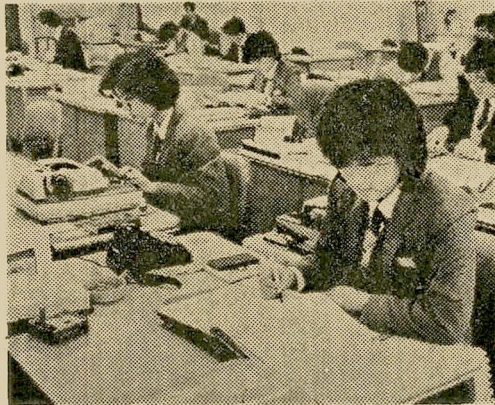
회사에서 결혼한 여사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자 회사모르게 결혼식을 올리고 계속 근무하는 여사원들이 많다. 또 한 취업준비생이 임신고를 미루쳐 결혼식을 올리는 여성들

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더욱 늘어나 추세인데 요즘 D류자 신랑의 여성원 퇴직요사건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여성차별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H기업에 나가는 李모씨 있다.

해워 편지를 택한 것이다. 李씨는 「사규에 명시돼있는 이는 모르겠지만 관행상 여사는 결혼후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대부분 여사원들이 이를 받아들여서는 부위기로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퇴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李씨는 현재 혼인신고도 미루쳐 대가족을 하나인 이 회사에서 미혼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성差別 피해 婚姻신고 미뤄 女權아닌 人權차원서 다뤄야



◇결혼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불문을 때문에 최근들어 직장여성들 중에는 결혼을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피하는 경향이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는 혼인신고만 1년 늦게했을 뿐 아니라 취업준비를 포기했다. 현재 공무원, 교사, 은행, 일 부 대기업, 일부 전문직종들은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이나 단임직원을 기용 여사원의 결혼퇴직이 당연한 전제조건이 되어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대부분의 여 사원들은 불만을 느끼지만 개 인적으로 법적 해결방법을 찾

(26·여)는 최근 결혼식을 올렸으나 가까운 동료들에게만 귀띔했을뿐 회사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회 사에서와 관행상 여사원(결 혼과 동시에 퇴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 학을 졸업한 李씨는 어렵게 얻은 직장을 결혼했다는 이유 만으로 1년도 채안돼 그만두 기가 요망했고 함께 사는 시 집친구들도 직장에게 단임간 계 속다니고 싶다는 李씨를 격려

상고를 졸업한 뒤 모그룹에 영사인 D모씨에서 사무직에 근무하던 김모씨(26·여)는 지난해 8월 결혼을 3달가량 앞두고 회사관행에 따라 사표 를 썼다. 결혼식을 올린 김씨 는 다시 직장에 나가고 싶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혼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모종 소기업에 제출해 일사했다. 김씨는 이 회사에서 근무를 다 시 시작했으나 신혼인데다 결 혼사실을 감춘 채 새로운 본

수년한국 「동방학 학

25~27일, 慶州 등 유적

國校 3~6학년대상 250명 先着順으로

수년한국 일본가 학년말을 방문 하를 이용 국민학생을 위한 화 습의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여행은 광주·부여에서는 백제문화유적을 탐사하고 경주에 서는 찬란했던 신라문화 유적 을 견학하게 됩니다. 또 수원 삼정전자의 을산 현대자동차공 장에서는 모인양국의 백반백 부사합에서는 대우부영의 생생 한 현장을 목격할 것입니다. 현 장 여사 공무원와 함께 생생한 일들의 하루를 견학하고 내일의



시라큐즈大 建築展 関선주양 大賞까지

29. 하버드大 건축대학원 이 「합평街」 저수지를 위 주택에 대한 연구」란 작품 로 대賞을 차지했다. 수년전출품은 시라큐즈大 재단장인인 수년학사 기러美東北部 평양의 전 하도를 대상으로 4년마다 최하는 건축 공모전이다. 生活단신 ▲한창초소녀에게 증정된 교과정을 무료로 가르치